

제5절 중남미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동향 및 전망

2010년 중남미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는 32억 3,0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, 향후 5년간 연평균 11.5% 성장하여 2015년에는 48억 7,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 세부 시장별로는 이러닝시장이 약 15.5억 달러, 정보콘텐츠가 약 10억 달러, 솔루션 시장이 약 2.7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이러닝 시장이 가장 높은 13.6%, 솔루션 시장이 그 뒤를 잇는 12.1%, 정보콘텐츠시장의 경우는 7.8% 정도로 예측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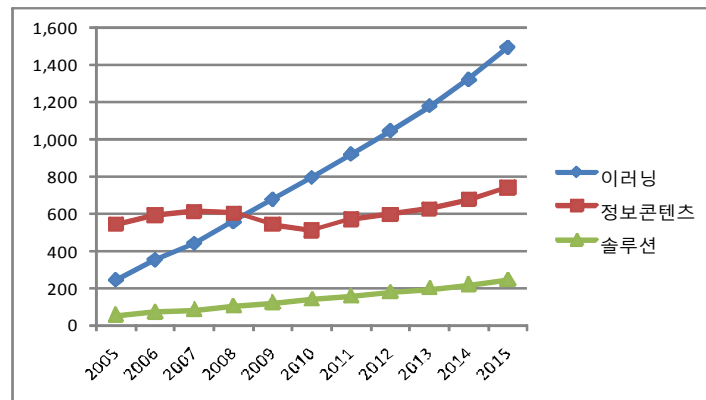
<표 III-17> 중남미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(2005~2015)

(단위: 백만 달러)

구분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10-15 CAGR
이러닝	409	617	820	1,062	1,303	1,551	1,802	2,064	2,331	2,601	2,935	13.6%
정보콘텐츠	928	1,048	1,149	1,165	1,050	1,003	1,121	1,182	1,242	1,335	1,458	7.8%
솔루션	93	123	156	195	232	269	307	347	387	427	478	12.1%
모바일												
합계	1,430	1,788	2,125	2,422	2,585	2,823	3,230	3,593	3,959	4,363	4,871	11.5%
전년대비 성장률		25.0%	18.9%	13.9%	6.7%	9.2%	14.4%	11.2%	10.2%	10.2%	11.6%	

자료원: PWC (2010); GIA (2010); Simba Information (2010)

분야별 시장규모 추이를 볼 때, 다른 권역의 시장과 동일하게 이러닝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솔루션과 이러닝 분야가 비슷한 성장률 추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자료원: PWC (2010); GIA (2010); Simba Information (2010)

[그림 III-18] 2010년과 2015년 중남미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분야별 비중



자료원: PWC (2010); GIA (2010); Simba Information (2010)

남미권 정보콘텐츠 시장은 중국에 이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. 부문별로는 재무정보의 비중이 가장 높고, 헬스케어, 법률 정보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.

브라질은 원격교육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. 브라질의 성인 평생교육 및 기업 훈련과 개발 시장 매출은 4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, 교육분야는 브라질의 에너지와 통신 시장과 유사한 전체 GDP의 9%를 차지한다. 교육 부문에서의 주요 투자 대상이 온라인 학습(e-learning) 분야인데, 온라인 학습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많은 대학과 기업에서 참여하고 있다.

또한 이러닝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투자 규모는 2000년대 후반 매년 30% 성장하여 왔다. 온라인 학습은 브라질 국민의 계층간,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. 브라질의 교육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웹 기반의 원격 교육분야이다. 인터넷과 화상회의를 통한 교육은 종업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유연하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.

브라질은 남미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선도하고 있으며, 브라질의 인터넷 사용자는 사용 시간과 음성-영상 콘텐츠의 사용면에서 유럽의 사용자를 앞선다고 평가되기도 할 만큼 그 잠재력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. 브라질 원격 교육 협회 (ABED)에 따르면 2004년 33개의 브라질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60개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.